사진자료

한국바스프, 울산 두서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화학 실험 교실 '바스프 키즈랩' 개최

2017 년 11 월 29 일 – 글로벌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는 오늘 울산 두서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화학 실험 교실인 '바스프 키즈랩(BASF Kids' Lab)'을 개최한다. 바스프 키즈랩은 1997 년 독일 본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40 개 국에서 매년 열리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화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 되었다. 국내에서는 2003 년 울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서울, 여수, 울산, 군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려 지금까지 약 5,100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바스프 키즈랩이 20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바스프의 아태지역 전자소재 R&D 센터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9 월 12 일)을 시작으로, 바스프의 사업장이 위치한 여수(11 월 23 일)와 울산(11 월 29 일)에서 각각 열렸다.

[사진] 오늘 울산 두서초등학교에서 열린 '바스프 키즈랩'에 참석한 학생들이 박영옥 교감선생님(왼쪽), 한국바스프 울산공장 유선정

미디어 문의

한국바스프
홍보팀 김나리 과장
Phone: (82) 2 3707 7507
Fax: (82) 2 3707 7889
nari.kim@basf.com

이화정 차장
Phone: (82) 2 739 7054
Mobile: (82) 10 4874 7803
clare.lee@insightcomms.com

한국바스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6 층 100-743
Phone: (82) 2 3707 7506
Fax: (82) 2 3707 7889
http://www.basf.co.kr

공장장(오른쪽)과 함께 실험에 참여 하고 있다.

###

바스프 키즈랩 소개

바스프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과학 교육과 기술을 통해 화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바스프 키즈랩은 어린이들이 쉽고 안전한 실험을 통해 화학의 세계를 발견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 화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본, 중국,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전 세계 40 여개 국에서 실시되었다. 1997 년 독일 본사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20 주년을 맞이했다.

한국 내 바스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1954 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선도적 외국 기업으로서 바스프는 국내 7 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원에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 소재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 시흥, 안산 소재에 4 개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 년 국내 고객 대상 총 매출액은 약 11 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6 년 말 기준 1,105 명의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하고 있다. 한국 내 바스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basf.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 그룹 소개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 만 4 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소재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 및 가스 등 5 개의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6 년 약 580 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BAS), 런던(BFA), 취리히(BAS)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asf.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nfidential